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배경과 전망

멸종위기 동식물 다량 분포  
역사·문화 자원도 곳곳 산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무등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전환된다면 우선 공원자원 보존 기반이 확립되고, 탐방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립공원 추진 배경과 효과,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다.

▲풍부한 국립공원 자원=우선 무등산 일대에는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멸종위기의 산작약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배쪽나리, 은방울꽃, 병아리난초, 천마 등 144과 1천51종의 식물자원이 있다. 숲을 비롯한 말뚝가리,

가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위상이 강화되고 연 20억원에 이르는 운영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해소된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은 무등산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게 됨으로써 탐방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문제점도 있다. 그동안 광주시 등이 추진해 왔던 무등산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광주시 산하 공원관리사무소 등 기존의 시 조직 축소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무등산 주변의 사유지 보유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지난 1988년 변산반도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전환되고 같은 해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점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관리공단은 지역 주민과 광주시 등에서 찬성 의견을 나타낸다면 언제든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진행한 양형일(광주 동)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이 현실화된다면 무등산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국의 관광지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무등산 국립공원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지정 실태=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 주왕산,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계룡산, 월출산, 북한산, 한라산 등 15군데 산과 다도해 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공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다. 또 충남 태안 해안과 전북 변산 반도가 해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라고도 경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두 20군데다.

▲국립공원 전환 효과=관리공단측은 무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한다면 광주호와 동북호 등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면적을 현재의 6배가 넘는 196km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무등산 일대가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 공원관리 전문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공원자원 보존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무등산의 가치

지정된 전국적 관광지 재탄생  
年 20억원 투입 국가서 관리  
기존 시 개발계획 수정 불가피

조룡이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인 새, 황조롱이, 소쩍새 등 산란조류 11목과 76종 및 수조류 2목2과3종도 서식하고 있다.

또한, 중생대 백악기 화산 활동의 산물로 생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를 비롯한 6개의 산봉과 3곳의 기암군, 5개의 고개, 2곳의 폭포 등 경관 자원도 국립공원으로 손색이 없다.

여기에 역사, 미술사, 민속, 고건축, 천연기념물 등 6개 분야의 총 338건에 이르는 역사·문화자원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관리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국립공원 전환 효과=관리공단측은 무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한다면 광주호와 동북호 등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면적을 현재의 6배가 넘는 196km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무등산 일대가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 공원관리 전문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공원자원 보존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무등산의 가치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3일 설문조사” “당 사수 실행행사”

與내분 재점화... 이번주 고비

지난 5일 당 지도부의 '설문조사 연기' 발표 이후 휴전 국면에 들어갔던 여당 내부의 통합신당파와 친노 그룹의 갈등이 정기국회 종료와 노 대통령의 조기 귀국 등에 따라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우선 통합신당파가 포진한 지도부는 10일 저녁 비대위 간담회를 통해 설문조사의 문항과 방법,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지도부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설문조사를 벌여

친노세력 1,300여명 당사서 당원대회 勢과시  
盧대통령 귀국후 행보·국회 파행 여부 변수

그 결과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15일 의원총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17일까지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 친노 진영의 기세를 확실히 제압한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는 친노 진영의 반발을 의식, 주관적인 설문 문항의 설계를 외부 조사기관에 의

외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조사 결과도 구체적 수치를 제외하는 형태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원 연찬회를 개최, 당 진로와 지도 체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는 여기서 내려진 결

론을 추진하는 절차로 삼겠다는 것이 통합신당파의 구상이다.

이에 반해 친노 진영이 주축이 된 당 사수파는 현 지도부 퇴진과 함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실행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10일 오후에는 영등포 당사에서 당원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 정상화를 위한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개최, 본격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노사모와 참여정치실천연대, 국민참여 1219 등 '범 친노세력'이 총집결했다.

여기에 참정연, 의정연, 신진보연대 등 친노 진영과 당 사수파 의원들은 금주 초 모임을 갖고 설문조사와 의총 개최에 대한 대응전략, 전당대회의 성격과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 세부에서 예정됐던 '아세안(ASEAN)+3' 정상회의가 태풍의 영향 등으로 내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13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밤 조기 귀국하는 점도 여당 내부 사태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5일 '당원 서신'을 통해 당 지도부의 설문조사를 비판했던 노 대통령이 귀국 또다시 친노진영의 입장에 서서 당 진로 논쟁을 전개한다면 당의 갈등이 폭발, 결국 분당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사학법 예산안 처리 연계 투쟁에 따른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파행사태가 빚어질 경우 당내 세력 간에 형성됐던 대립전선이 한나라당 쪽으로 옮겨가면서 당 진로를 둘러싼 논란은 또다시 일시적 휴지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일 서울 영등포동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당 정상화를 위한 전국당원대회'에 참석한 친노계열 당원들이 비대위 해체와 전당대회 준비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학 유족 한 풀릴때까지 108배 계속”

조병감 증손녀 조기숙 前수석 112년만에 사죄

최근 자신이 조선 말 전북 고부군수를 지낸 조병감의 증손녀란 사실을 공개했던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9일 동학농민혁명군 유족에게 사과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유스호스텔에서 동학농민혁명군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 유족의 밤' 행사에 참석, "조상을 대신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이화)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조병감의 증손녀'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적절

한 시기에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좋다고 보고 미뤄오다 오늘 기회를 갖게 됐다"며 "저를 초청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사자인 조상이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며 "늦었지만 동학혁명군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애국자로 대접받는 게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학농민혁명군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최근 몇달 동안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한이 풀릴 때까지 (108배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조병감의 증손녀란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유족들에게 공개적

으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진작에 찾아뵙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밖에는 그는 "오늘은 처음 만난 날이다 보니 많은 얘기를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을 부모님 모시듯이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한 뒤 이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유족들에게 큰 절을 올려 박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동학의 태인 대접주었던 김계남 장군 손자인 김상주(59·전북 정읍시)씨 등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화해와 용서의 자리"라며 "동학농민혁명군의 후손은 바로 동학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며, 동학혁명군의 후손이라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충남 공주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 유족의 밤' 행사에 참석한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동학농민혁명군 유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LANEIGE ALL LASH MASCARA. The image shows a woman's face with dramatic eye makeup, including long, dark eyelashes. The text 'ALL LASH MASCARA'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top left, and 'LANEIGE' is at the top right. Below the woman's face, there is a close-up of the mascara wand and tube.